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성화의 확실성 [데살로니가전서 5:23-24]

설교자: 앤드류 드 브리스 (Andrew de Vries)

23 평강의 하나님은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24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인생에서 어떤 것들은 매우 확실합니다. 겨울의 언 서리처럼, 비숍데일 교회의 풍성한 노래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확실한 것 중 하나는 거룩함으로 성장은 어렵다는 것 입니다. 성화됨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를 낙담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죄에 맞서 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라고 생각해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성화는 어려운 것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용기를 줍니다. 사실, 성화의 확실성은 오늘 설교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깊이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성도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더욱 성장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성도들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성도들에게 "모든 형태의 악을 멀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구절은 매우 무겁게 느껴지는 명령들로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23절에 이르면 그 부담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성화의 과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성화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며 계속 나아가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1, 우리의 확실한 성화의 주요 기여자

설교본문 23-24절에서 바울은 회중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을 통해 그가 성도들의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건강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화에 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 자신이 그 성화에 스스로 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화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에서 바울은 그들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싸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 즉 모든 것이 세상 안에서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던 그 안에서 살롬(평화)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세상은 여러분에게 살롬(평화)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성화되고 거룩함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살롬(평화)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2, 우리의 확실한 성화의 포괄적인 범위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23 평강의 하나님은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23). 그 분께서는 그 일의 절반만 완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하십니다. 그 분께서는 우리를 거룩케 하기 위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개입하시고자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성격이나, 나쁜 행동들을 수정하려는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이 일에 너무나 헌신적이셔서 그리스도의 날(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완전히 성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와 씨름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3, 확실한 구원에 대한 놀라운 약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사역을 마치시고 선언하셨듯이 죄의 권세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백성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은 강력한 부르심이며 그 일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부르면 그들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에는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로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여러분의 성화는 확실히 보장되었습니다.